



2023.03.02

체육시민연대 제1차 집행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9호

### 김포 FC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

**‘극단 선택’ 김포 FC 유소년 선수 생일날...법적대응 나선 父**

정일형 뉴시스 기자

###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권리를 논하다

**여자, 남자를 넘어 ‘모두의 운동장’을**

이영경 경향신문 기자

### 김세훈의 스포츠IN

**한국 스포츠, ESG 경영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해야 할까**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 승부조작의 유혹

**신문선 “스포츠의 공정성 파괴...그 나라 부패지수와 비례**

김형민 아시아경제 기자

###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2023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종목에 채택된 태권도, 반가움에 앞서 아쉬운 이유는?**

남정석 스포츠조선 기자

### 광주 북구 센터 ‘전국 1호 밴다비체육센터’

**밴다비체육센터의 배신, 패럴림픽 유산 ‘장애인 뒷전’ 지적**

한규빈 광주드림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극단 선택’ 김포 FC 유소년 선수 생일날... 법적대응 나선 父

지난해 발생한 국내 프로축구 경기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해당 선수의 아버지가 사건에 연관된 구단 감독과 코치 등에 대해 재계약을 추진한 김포FC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뉴스시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고 유소년 선수 A(당시 18세)의 아버지 B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4시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김포FC를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아버지 B씨는 "누구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진심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 지도자들의 반복적이고 심각한 언어 폭행, 괴롭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한 아들은 본인 유서에 그들 때문에 매번 '살인 총동과 자살 총동'을 느꼈다고 남겼다"면서 "분명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임에도 여전히 그 팀에 남아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코치 등 지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했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 동료들의 증언이 중요한 데도, 김포 FC가 해당 감독이나 코치진을 분리하지 않은 채 올해 초 재계약을 맺었다"면서 "이는 경찰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커 김포FC를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B씨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4월27일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면서 "오는 3월 14일이면 아들의 생일이고,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오늘(6일)이 음력 아들의 생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김포경찰서에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철저한 경찰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구단 소속 유소년 선수 A(당시 18세)군은 지난해 4월27일 경기 김포의 한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당일 오전 2시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5월6일 김포FC의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3일 감독·코치 등 지도자들과 일부 동료 선수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포FC는 사건과 연관된 감독이나 코치 등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었다.

김포 FC는 스포츠윤리위원회에서 어떠한 근거로 징계 조치됐는지 내용도 없었고, 공문도 오지 않아 관련 감독과 코치에 대해 징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포FC 서영길 대표이사는 "스포츠윤리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까지 어떠한 근거로 징계 조치됐는지 공문으로 통보해 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면서 "대표이사 재량으로 징계를 내리기에는 법적 근거 등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치나 감독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연관돼 있다.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징계 결과가 나오면 당장이라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징계 조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A씨의 부모로부터 민·형사 소송 등을 제출 받으면 이달 말 관련 공문을 김포FC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 여자, 남자를 넘어 '모두의 운동장'을

“스포츠는 오랜 시간 생물학적 성(性)으로 구분되어 존재해왔고, 이는 공정성에 대한 하나의 믿음이자 성(城)이었다. 따라서 전통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새로운 성(性)의 존재는 쉽게 자연 질서의 파괴이자 외부 요인으로 여겨진다.(...)”

트랜스 운동 선수의 스포츠 참여 금지가 이미 성적으로 차별받아 온 성소수자들이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신체 활동의 이점'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운동을 통한 불안, 우울증, 자살 시도 등의 위험 감소, 담배와 마약 사용 등의 감소를 포괄한다. (...)제도는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의학·과학적 논의를 멈춰선 안 된다.”

-Zephyrus <모두의 운동장>(스리체어스) 중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역도 경기는 '이번 올림픽에서 꼭 봐야 할 순간'이 됐다. 올림픽 무대에 트랜스젠더 선수가 선 것이다. 뉴질랜드 여자 역도 대표팀 선수 로렐 허버드는 2012년 성확정 수술을 받고 로렐로 개명한 뒤 여자 역도 선수로 활동했다. 2016년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가 IOC가 제시한 기준 밑으로 내려가자 여성 선수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은 허버드의 과거 사생활을 파헤치고 성확정 이전의 이름을 쓰며 선정적으로 소비했다.

허버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역도 선수 중 최고령인 43세였다. 세간은 그가 '트랜스젠더'라는 점에 집중했지만, 그에겐 선수로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도전이었다. IOC는 이후 트랜스젠더 혐오를 금지하고 존중하라는 보도 지침을 언론사에 전달했다. 허버드는 “조명을 원치 않던 한 명의 역사(力士)였지만 스포츠 미디어와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여에 있어 사실상 새로운 역사(歷史)를 쓴 셈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트랜스 여성 선수가 시스젠더 여성 선수보다 운동에 더 적합한 신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트랜스 여성 선수가 여자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여러 과학적 연구를 소개하며 “현대 의학을 포함한 스포츠 과학으로는 현재 트랜스 여성 선수와 시스젠더 여성 선수와의 시합이 공정한지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제도 변화를 위해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 성 소수자가 더 당당해지고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선 트랜스젠더의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스포츠 권리를 논하기엔 아득한 느낌이 있다. 하지만 서구에선 이미 공정과 포용의 딜레마를 넘어서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운동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 스포츠, ESG 경영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해야 할까

최근 세계 경제계 주요 화두 중 하나가 ESG 경영이다. 'Environment(친환경)' 'Social(사회적 책임)' 'Governance(지배구조)' 등 머릿 글자를 딴 표현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철학이 담겼다. 모두 비재무적 요소들이다. 매출, 수입 등으로 기업을 평가한 과거 기준과 다르다.

ESG 경영은 미국·유럽에서 '투자자'에서부터 시작됐다. 미국, 유럽이 ESG를 강조한 것은 중국, 러시아, 중동 등과 패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자금력, 정치적 존재감, 자원 희귀성 등으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라이벌을 제어하기 위해 그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도덕적,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미국·유럽과 협업을 원하는 해외 기업에게 ESG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ESG의 시작은 G였다. 시작 주체는 투자자였다. 투자자는 기업 지배구조를 확실히 꿰뚫고 있어야 투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재무제표 등으로만은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힘들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신성연 연구위원은 "ESG 경영은 G에서 시작돼 E, S가 붙었고 이후 많은 산업계로 확장했다"고 말했다.

스포츠 ESG 적용이 가장 활발한 곳이 미국과 영국이다. 미국은 미국프로풋볼(NFL), 미국프로농구(NBA), 미국프로야구(MLB) 등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강조한다. 친환경 건설,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 기부, 지역 봉사 등이다. 섬나라 영국에서는 온난화로 인해 스포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강수량이 늘면서 축구, 크리켓 경기 시간이 10년 전에 비해 약 20% 단축됐다. 해안에 있는 스코틀랜드 골프장 100개 정도는 빙하가 녹으면서 침식 위기에 처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스포츠의 사회적 영향력과 시장 규모가 커 사회와 긴밀하게 공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다. 미국, 영국 스포츠의 ESG 경영은 생존이 걸린 문제인 셈이다.

한국스포츠계는 ESG 경영을 유행처럼 인식하는 느낌이다.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종이 입장권을 없애자, 페플라ستيك으로 만든 유니폼을 입자, 환경 보호의 날을 지정하자 등 일회성 전시행정에 머무는 경향이 크다. 봉사 활동도 특정 시기에 타성적으로 반복된다. ESG 경영이 가장 필요한 산업은 에너지, 제조업, 건설업 등이다. 스포츠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과하게 주창하면 스포츠가 ESG를 저해하는 주범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한국스포츠 역사와 현실, 현재 구조를 고려하면, 가장 시급하게 ESG 경영이 도입돼야 하는 분야는 G, 즉 지배구조다. 프로구단은 재정적으로 모기업, 지자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모기업, 지자체가 구단 내부 인사, 선수단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적잖다. 프로구단은 외부 조직에 배타적이고 협업도 꺼린다. 직원 처우, 고용 과정 등 내부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많다. 국제 스포츠조직들은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이해관계자 포용 등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S, 즉 사회적 책임도 무척 중요하다. S는 연탄 나르기, 양로원·고아원 방문 등 지역봉사활동을 뛰어넘어 사회 공유가치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성평등, 건전 경영, 약자 보호, 타분야와 협업, 차별 금지, 다원성 인정 등 말이다. E, 즉 환경보호에서도 급수대 설치, 친환경 경기장 건설, 에너지 절약 정책 등 본질적인 해결책이 수립돼야 한다.

미국, 유럽 등은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신성연 연구위원은 "한국 스포츠기업이 미국, 유럽이 원하는 밸류체인에 들어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며 "자금력, 행정력, 인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이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3060724003&sec\\_id=530101&pt=nv](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3060724003&sec_id=530101&pt=nv)

## 신문선

# “스포츠의 공정성 파괴... 그 나라 부패지수와 비례”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64·축구해설위원)는 청파초 축구선수 시절 두 눈앞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현장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신 교수가 나간 경기에서 청파초는 상대 팀과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심판은 양 팀의 주장을 불렀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시켰다. 이긴 주장은 심판이 하늘에 던진 봉투 2개 중 하나를 먼저 골라서 안에 있는 종이를 펴 본다. 종이에 '승'이라고 적혀 있으면 승리는 그 주장이 속한 팀이 가져가는 것이었다.

신 교수는 본지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 전에 감독님이 주장 선수를 따로 불러서 '심판이 늦게 던지는 봉투를 집어라. 거기에 '승'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해줬다. 결국 감독과 심판이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1960년대 그라운드에선 흔했다고 한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기이한 형태로 이뤄져 왔다"며 "1960년대부터 이미 우리 스포츠는 승부조작이 일상화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선수 시절 기억을 안고 해설위원, 축구행정가로 일하며 신 교수는 그라운드 위에선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정정당한 승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는 특히 승부조작에 대해선 냉철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 교수는 2016년 발각된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의 '심판 매수' 사건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에 "이탈리아 등 승부조작이 빈번한 나라들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도 있다. 전북 구단 소속 스카우트가 2013년 심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는 청탁을 한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연맹은 전북 구단에 대해 승점 9점 삭감, 벌금 1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신 교수는 "큰 사건들로 홍역을 앓았지만, 과연 우리 지금 깨끗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모두 '예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가 가진 가치가 있다. 공정성이다"라고도 강조했다. 연령, 계급,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스포츠의 가치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암묵적 거래에 의해 그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스포츠 부패의 정도는 그 나라의 부패지수와도 비례한다"라고도 했다. 실제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31일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중하위권에 오른 국가들은 프로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운영하더라도 매우 부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1개 나라 중 우리나라는 31위에 올랐다. 신 교수는 "미국 등 스포츠 선진국들은 스포츠 가치를 정치보다 더 위에 둔다"면서 "스포츠의 순수성을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대입해 국가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우리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예방도, 대책 수립도 없다면 앞으로 승부조작의 위험성은 더 커질 것으로 신 교수는 보고 있다. 최근 20대 젊은 선수들은 물론이고, 학생 선수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등 가상공간에서 지인 또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그러면 승부조작의 유혹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 선수들 스스로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걸고 경기에 나가는 일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져 체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신 교수는 대응 방안으로 '처벌'을 강조했다. 특히 "승부조작이 발생했을 때 협회, 연맹 등 체육 기관들의 책임도 엄격히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4대 프로스포츠 종목(야구, 축구, 농구, 배구)별 승부조작 사건들을 돌아보면 승부조작을 시도한 지도자, 선수들은 엄벌을 받았지만 소속 구단, 연맹 등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 선수, 지도자를 임의탈퇴, 영구제명 조치하고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신 교수는 "축구의 경우엔 최근 VAR이 도입되면서 오심이 늘었다. 오심이 나오면 심판들만 징계를 감수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선) 그라운드 위에 일어나는 의심스러운 사고에 대해 구단, 연맹 등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종목에 채택된 태권도, 반가움에 앞서 아쉬운 이유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2023'을 개최한다.

IOC는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2021년 첫 대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100여개국 25만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2년만에 열리는 두번째 대회에선 태권도를 비롯해 양궁, 야구, 체스, 사이클, 댄스, 요트, 모터스포츠, 테니스 등 총 9개 종목이다.

e스포츠는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2022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사상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고, 향후 올림픽에도 충분히 진입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e스포츠 종목이 레거시 스포츠와 달리 특정 게임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IP인데다, 기존 스포츠 단체들의 거부감 등으로 인해 정식 종목으로의 도약이 현재로선 요원하다.

또 아날로그와 디지털 스포츠를 올림픽이라는 한 테두리 내에서 소화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아예 디지털 올림픽을 따로 여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어쨌든 전세계의 젊은층이 기존 종목보다 e스포츠에 더 열광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종합대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IOC로선 e스포츠를 계속 배척하기 보다는 함께 손을 잡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를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사전 대회로 보는 이유다.

다만 IOC가 각 국제경기연맹과 공동 주최를 하게 되면서, e스포츠에 특화된 국제연맹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다 글로벌에서 인기를 모으고 다수의 국내외 대회가 열리는 종목이 아닌, 좀 더 정확히는 가상 스포츠(Virtual Sports)에 집중하면서 기존 e스포츠와의 괴리감도 상당하다.

태권도의 경우에도 세계태권도연맹은 국내 회사가 아닌 싱가포르 리프랙트의 태권도 겨루기 게임 '버추얼 태권도'로 경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양궁 역시 리프랙트의 '틱 택 보우', 야구는 일본 코나미의 'WBSC e베이스볼: 파워 프로'로 열리고, 모터스포츠는 '그란 투리스모'로 진행되는 등 국내 게임사 종목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기대감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e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를 역임했던 한 관계자는 "IOC가 e스포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올림픽에서 e스포츠가 제대로 열리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실망감을 나타냈고, 또 다른 관계자는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한국이 기존 글로벌 대회뿐 아니라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에서도 주도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국기라 할 수 있는 태권도부터라도 국산 VR 태권도게임과 손잡고 대회를 치르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다비체육센터의 배신, 패럴림픽 유산 ‘장애인 뒷전’ 지적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유산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형으로 조성된 북구 반다비체육센터가 정작 운영에 있어서는 비장애인을 위주로 운영돼 사업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패럴림픽 유산 사업인 만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우선 이용,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 등이 사업 목적으로 꼽혔는데 장애인들의 사용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관 당시 ‘전국 1호’, ‘세계 최초’ 타이틀까지 붙은 만큼 타 지역의 롤 모델로 조성하겠다는 다짐을 내놨는데, 정작 시설 사용에 우선시되어야 할 장애인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총 6레인 중 3레인은 성인풀, 2레인은 장애인 이용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지도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실상 성인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본보 취재 결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의 평일 기준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장애인 전용 레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모든 레인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설 이용자 노성태 씨는 “북구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은 가족 탈의실을 갖추고 있어서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곳”이라면서도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북구장애인체육회는 오후 6시 이후 자유 수영 시간에도 장애인 전용 레인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북구 반다비체육센터는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유산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국내 1호이자 세계 최초로 개관한 바 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이자,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조성됐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해 개관 당시 앤드류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이 직접 방한해 “반다비체육센터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며 “역대 패럴림픽 유산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이고 훌륭한 케이스로, 스포츠를 통해 통합 사회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선례이자 의미”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조성 목적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씨는 “기존에는 자유 수영이 가능한 시간에 오후 6시 이전까지는 2개, 오후 6시 이후로는 1개 레인을 장애인 전용으로 편성했다”며 “갑자기 비장애인 이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 오후 6시 이후에 장애인 전용 레인에서 강습도 하고, 비장애인들이 자유 수영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이 이용을 하는 상황에는 비장애인들이 다른 레인으로 이동하도록 강사나 안내 요원들에게 요청했더니 비장애인도 사용하는 겸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런 마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공지도 없이 기존 장애인 전용 레인과 자유 수영 레인을 자유 수영 상급·하급으로 바꿔버렸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에 대한 민원을 1월 말부터 제기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항의 방문을 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답변을 주기로 해 28일 오전 10시에 센터에서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북구장애인체육회는 안전상의 문제와 인력 배치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들었다. 한근준 북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반다비체육센터의 건립 취지가 장애인 전용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5개 레인 중 2개를 배정받아서 강습이나 자유 수영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2개 레인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저희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수영장 내 안전사고는 생명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거쳐서 질병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저희가 전용으로 빼놓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희가 퇴근한 이후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 수영을 함께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설을 함께 사용한다는 우리 센터 취지에 따라서 조정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권고를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지침은 오는 4월 경 발표될 예정으로, 해당 지침에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우선 이용 보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성범죄자가 체육시설·학원 근무...여가부, 81명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141400530?input=1195m>

병사 돈 뜯고 거짓 진술 강요...체육부대 감독 실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02784&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02784&plink=ORI&cooper=NAVER)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행평가용 국민건강체조 콘텐츠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3053800007?input=1195m>

"꿈나무X청소년대표는 국가대표가 아니므로" 교육부의 학생부 지침, '미래국대' 지원사업 암초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3030100011950000705&servicedate=20230302>

[Value Up! KPGA 3] 스타는 빠지고 주니어 선수는 절벽

[http://jtbcgolf.joins.com/news/news\\_view.asp?ns1=43242](http://jtbcgolf.joins.com/news/news_view.asp?ns1=43242)

"예스, 노"만 알던 31세 코치...13년 연속 100안타 타자가 놀란 이유는[투산 비하인드]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3010100000360026346&servicedate=20230228>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모집...2년 최대 20억원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064100007?input=1195m>

몸푸는 스포츠 영화들... 스크린 승자는?

<http://www.kidshankook.kr/news/articleView.html?idxno=6292>

"운동선배들이 너희 꿈을 응원해!" 이예리사휴먼스포츠,파라아이스하키 꿈나무에 장학금 전달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3070100040430003793&servicedate=20230306>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